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 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노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 창세기 3:1-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기독교 역사의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흠만한 기쁨과 승리를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써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영적 레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특유의 속성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또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경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동산의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창 2:16-17)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게 된 데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교제를 나누며, 영화와 존귀로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의지는 오직 인간들만이 가질 수 있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이 만들어진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그분을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누구나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열드려 경배하며 돌리는 영광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없습니다(사119:105).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 길에 빛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삼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에덴동산에 교활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일단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유혹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하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보다,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하와를 공격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함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마귀는 여자가 먼저 범죄하고, 그 여자가 남자로 범죄하게 하는 순서가, 남자가 먼저 범죄하고 그 남자로 여자를 범죄하게 하는 것보다 그 기절이나 성향에서 훨씬 더 수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마귀의 무리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와 수치와 두려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9)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맺는 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므로 회복과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Ⅲ,Ⅳ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예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602 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집회		오전 9시	6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회		오전 10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정호 교육전도사 이신우 박다형 최인애 허승일
 협동 목사 김영한 김철홍
 선 교 사 강아금 주현나, 이시라,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현내(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보로에, 조남래,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일
 (필리핀),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배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김인서·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병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함·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원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열·백순미(타카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Ngiang Hi·Samuel Kei Sum(미얀마)

- Welcome!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Our Discipleship I & II continues. Discipleship I- 12:50-1:30 Discipleship II- 1:50-2:30
- Mark your calendars- July 13-14th English Ministry Retreat- Coming Together and Crying Out
- Please continue to be faithful in our 'Read the Bible in One Year Program' and daily check out our website to read the Daily Bread. www.seoulem.org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유문건 목사	유문건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김광신 장로
III	오후 2시	오세광 목사	오정수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3: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합 계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계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십계명) 다 합 계 2부:3(시 4편)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계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72(330) 다 합 계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3:7-2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계
헌 금 Offering	다 합 계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계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계
설 교 Sermon	"죄와 벌, 그리고 은혜" 박노철 목사 (Sin, Punishment, and Grace)
* 찬 송 Hymn	251(137) 다 합 계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계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박노철 목사, 설교: 김성환 선교사

목 도	다 합 계
성 시	시 3:8 인 도 자
찬 송	89(89) 다 합 계
기 도	홍순석 집사
찬 송	507(273) 다 합 계
성 경	시 67:1-7 인 도 자
홍해작전 발대식	말 은 대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명의 모든 끝들이 주를 찬양"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518(252) 다 합 계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합 계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권영월 권사, II부: 강윤숙 권사
성 경	마 6:9-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아버지의 영원한 소유" 설 교 자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본당

설 교: 박노철 목사

금 요 기 도 회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홍해작전 기간중 금요기도회는 개인기도회로 대체됩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빛을 발하라 충성된 종들아	이종윤 작사 박정선 작곡	박정선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경배의 노래	John E. Coates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예수는 세상의 빛이요	최지은	류충기	최수환	양경실	윤중현1
찬양예배	배들레헴	나를 받으옵소서	최덕신	유태왕	김정희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I will lift you there	Dottie Rambo & Dony McGuire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부	은 빛	크시도다 주님의 은혜	W. H. Runyan	박래경	김윤지2	홍해란	
수요 II부	시 온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현철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헌금송)

I부	유 년 부	감사해요	Peter & Hanneke Jacobs	박재원	권보화	
II부	그래스랜드밴드	주 은혜 놀라워	Cynthia Dobrinski	송재월		
III부	아멘관현악단	There's something about that name	W. J. Gaither	임병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노경선	12교구	시라	신성균/조민자	박대서	1-8	베드로	자비팀	배문경	13-25	루디아	회락팀
이영애	14교구	마리아	우상태	최경애	13-19	빅빅	회경팀	이명수	9교구	다아스포라부	박광일
장광규	14교구	바울	회락팀	정경희	1-8	빅빅	자비팀	오세정	8-2	청년2부	김덕호
신재곤	13-4	바울	인내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8.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장소: 302-306호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9.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0. 의료 상담 / 하인선(신경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0-3688-9123

☑ 장례

1. 이준호 성도(5교구 이관모 권사 부친, 조영식 성도 장인) / 5월30일(수) 별세, 6월1일(금) 발인



존영을 덧입도록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을 상실해 버릴 때 힘으로는 동물만 못하고 능력으로는 기계만 못한 존재로 전락케 되니 그 존귀함을 상실하게 된다.

모름지기 자기의 존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죄를 멀리하고 창조질서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과욕과 무절제, 방종과 게으른 생활은 받은 바 존영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악들이다. 방탕과 교만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를 주게 되는 극악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도 아니되고 국민의 신뢰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겨서도 아니 될 것이다. 불의와 멀리 서있는 깨끗하고 옳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존영은 덧입혀질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지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일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